

# COMMISSIONERS



## 인추협 2012 임시총회 개최



권성 위원장(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이사장)은 9월 6일 서울교총회관에서 '인추협 2012 임시총회'를 개최했다. 권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"회원수 확충 등 협의회 내실화를 추진하고, 사업의 이원화로 전문성과 추진력을 제고해야 한다"고 강조했다. 임시총회에서는 정관개정안 및 이사회 임원 확대안을 가결했다.

## 빠른 취재보다 정확한 보도 강조



김종량 부위원장(전북중재부, 전 전북일보 편집국장)의 인터뷰가 9월 11일자 전북일보에 게재됐다. 김 부위원장은 "취재 기자들이 마감시간에 쫓기거나 경쟁사에 앞서기 위해 성급하게 보도하면서 문제가 생긴다"고 지적했다. 또한, "아무리 좋은 내용이더라도 진실이 수반되지 않은 취재는 정당화될 수 없다"면서 정확한 보도가 언론의 생명임을 강조했다.

## 정치영화 개봉과 관련한 의견 피력



박성희 위원(서울 제7중재부, 이화여대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)은 동아일보와 인터뷰를 가졌다. 8월 21일자 '정치 영화 3편이 온다... 후폭풍은 얼마나 불까'에서 박 위원은 정치영화로 인해 유권자가 감성 정치에 휩쓸릴 수도 있다고 우려하며 "영화는 전달력이 강한 매체이므로 유권자가 매체 이해력을 길러 영화 내용과 현실을 현명하게 구분해야 한다"고 말했다.

## '인터넷 선거보도 공정성 확보방안' 세미나 참석



유익선 위원(서울 제7중재부, 이화여대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)은 9월 13일 '인터넷언론의 변화와 선거보도 공정성 확보방안'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했다. 유 위원은 인터넷 선거보도심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"대상 메시지의 수량적 공정성, 질적 공정성뿐만 아니라 매체시장의 여건에 따른 내적 공정성, 외적 공정성 요소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"고 주장했다.

## '글로벌투게더경산' 이사장 선임



장익현 위원(대구중재부, 변호사)은 9월 13일 삼성사회봉사단이 설립한 사회적 기업인 '글로벌투게더경산'의 이사장으로 선임됐다. 장 위원은 취임사를 통해 "글로벌투게더경산의 꿈은 다문화가정이 자립할 수 있는 희망을 주는 것"이라며, 다문화가정의 일자리 창출, 다문화가족 체험 등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.

## '공영방송 거버넌스 개혁' 포럼 참석



주정민 위원(광주중재부, 전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)은 8월 28일 미디어미래연구소가 주최한 '공영방송 거버넌스 개혁' 포럼에 발제자로 참석했다. 주 위원은 '공영방송의 거버넌스 개편방안'이라는 주제로 이사진의 중립성 확보와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체제개편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.